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9~10/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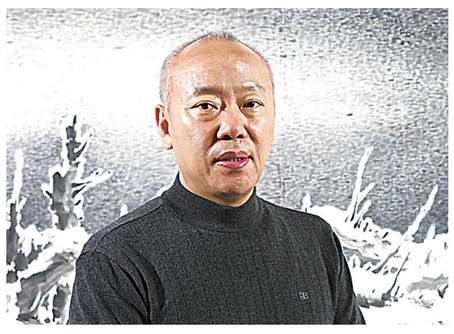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담마빠다:진리의말씀붓다의지혜(법구경)	화령 역주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무비스님이가려뽑은불교명구365(전2권/세트)	무비 지음	불광출판사
4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재가자도성불할수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5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입보살행론:지복에이르는보살의길+낭송CD	샨티데바/석혜능	부다가야
7	디가니까야(2)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8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불법의대들보마음챙김(붓다의고귀한길따라)	활성	고요한소리
10	반야심경무슨말을하고있나:산스크리트어본과8종의한역본	관정	알아차림

책세상

무애의 붓끝으로 깨달음 그림자 그리다



선화와 선시
선화 김양수/역 석지현
민족사 펴냄/2만6,800원



김양수 화백



〈석양〉22.2x15.5cm, 한지에 수묵담채화



〈강설〉19.2x13cm, 한지에 수묵담채화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적 선화 지평 넓힌 김양수 화백과
선시 번역 대가인 석지현 스님의 만남

62편의 선화와 선시, 4장으로 나눠 편집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수록된 선화 전시회

〈선화(禪畵)와 선시(禪詩)〉의 김양수 화백은 삶의 근원을 찾아 수행하며 깨달음의 세계를 그리는 선화가(禪畵家)로 유명하다. 김양수 화백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림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새도 되었다가, 소나무도 되었다가 때론 거대한 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그의 그림은 삶을 꿰뚫고 있다. 이런 그에게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마음자리를 좇아 여행할 기회가 주어졌다.

민족사 출판사가 3년 전 기획한 '선화와 선시의 만남' 이다. 선화와 선시라는 예술과 문학의 만남은 '선의 세계' 를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는 김양수 화백과 석지현 스님과의 오랜 인연이 있었다.

두 분은 사랑방처럼 민족사에 자주 들러 차를 마시면서 '선화와 선시의 만남' 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기투합, '선화와 선시의 만남' 을 기획해 이번에 3년 만에 출간하게 되었다. 석지현 스님의 선시 내용에 맞춰 김양수 화백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석지현 스님은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이후, 70년대 문학에서 '선시' 라는 장르를 개척했으며, 특유의 감각적 시선과 자신만의 색채로 작품을 새롭게 읽어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전통 선시를 번역 해설한 작가 중 가장 빼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양수 화백은 책의 머리말을 통해 "잔잔한 물처럼 고요함 속에서 붓 끝에 혼을 모아 고승들의 울림을 따라 나섰지만 무명속에서 헤매기도 했다"며 "그 길 위에서 참회하며 눈물로 먹을 갈아 선사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인연이었다"고 고백했다.

진옥 스님(석천사)의 추천사를 보면 '선화' 의 개념을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옥 스님은 "선화는 선화라는 프레임도 거부한다. 선화에 갇히면 이미 선화가 아닌 죽은 그림이다. 소재에도 있지 않다. 대상이나 기법에도 있지 않다. (중략) 마음의 그림이지만 그것마저 표현일 뿐인 것이 선화이다. 흑자는 마음대로 그리거나 제멋대로 하는 것에 선화라는 이름을 붙이나 양두구육에 불과하다. 선화는 깨친 사람이 나를 비우고 욕심을 버린 선의 상태에서 관찰된 대상의 마음 그림자를 그린 그림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선화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선의 세계, 곧 깨달음의 세계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진옥 스님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 선화는 선화라는 프레임도 거부한다. 진옥 스님은 이 책에서 "깨친 사람이 나를 비우고 욕심을 버린 선의 상태에서 관찰된 대상의 마음 그림자를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선화가인 김양수 화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책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선화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선사해 준 김화백의 내공이 선화 속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양수 화백은 이 책의 선화를 그리며 "제 그림이 기존 선화와 다르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색채도 화려하고 흔히 선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백도 많이 주질 않았다"라며 "제가 생각하는 선화는 집안에 제 그림을 걸어놨을 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흔히 선화라면 달마도도 그리는데 이번 책에서는 한점도 그려넣질 않았다"며 "지난번 통도사 전시에서는 달마도를 그렸는데 기존의 무섭고 근엄한 표정이 아닌 해학적이고 재밌는 달마도를 그렸더니 관람객들이 좋아했다"며 "한국의 서정성에는 해학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선화에 대한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선시는 선의 세계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선이면서 선이 없는 것이 시요(禪而無禪便是詩) 시이면서 시가 없는 것이 선이다(詩而無詩禪儼然). 석지현 스님은 "선시란 언어를 거부하는 '선' 과 언어를 전제로 하는 '시' 의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언어에 뒤따르는 사고작용마저 선은 용납하지 않는다. 대신 선에서는 오직 자기 자신 속에서의 직관적인 깨달음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깨달음의 희열을 담은 선시 번역을 위해선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경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석지현 스님의 선시 번역과 해설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빼어나다는 찬사를 받는 것이라고 김양수 화백은 극찬한다.

이 책에는 62편의 선화와 선시가 주제와 내용에 따라 1장 공(空), 2장 무(無), 3장 무상(無常), 4장 무아(無我)로 나눠 편집돼 선화 한편당 선시 한 편이 담겨 있다. 먼저 석지현 스님이 전통 한문 선시 62편을 선정해 번역과 간단한 해설을 달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양수 화백이 전남 진도에 칩거하면서 1년 동안 참구하며 선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선화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마침내 선화와 선시, 이 환상적 만남을 통해 선의 세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선화시집이 탄생된 것이다.

한편 이 책에 수록한 선화의 원본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선화 전시회가 서울 경복궁 옆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10월 28일까지 열린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 급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느림의 철학과 명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느림의 철학을 그림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선화와 선시〉이다.

▲석지현 스님은?

13세 때 충남 부여 고란사로 출가했다.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詩) 부문에 당선돼 승려시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197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명상에 심취해 인도 네팔 미국 티베트 등지를 오랫동안 방랑했다. 미국에서는 5년 동안 살면서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필라델피아서 만난 이슬람 수피의 가르침도 인상적이었고, 다람살라에서 만난 달라이 라마의 소탈함과 따스한 자비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 과정서 수행과 글쓰기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어 귀국 후 불교 경전과 힌두교, 티베트 불교, 선어록 등을 망라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편 · 저 · 역서로는 〈선시 감상사전〉(전 2권), 〈종용록〉(전 5권)), 〈불교를 찾아서〉, 〈선으로 가는 길〉, 〈행복한 마음 휴식〉 등 다수가 있다.

▲김양수 화백은?

1960년 전남 진도의 한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요체(要諦)이자 동체(同體)이다. 인연 있는 이들과 작업의 결정체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그동안 중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인전과 초대전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신문과 잡지 등에 글과 그림을 연재하거나 지인들의 책에 마음 담아 삽화를 그렸다. 저서로는 〈내 속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 〈고요를 본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등의 시화집이 있다. 현재는 진도의 적염산방(寂拈山房)서 그림과 글쓰기에 정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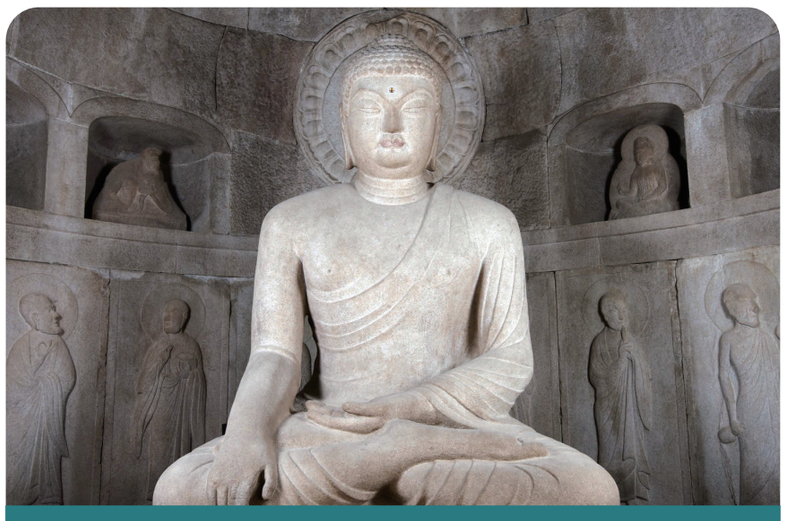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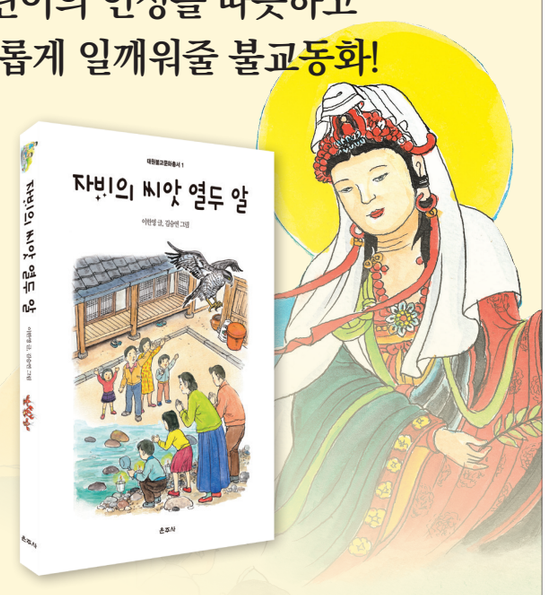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